

야 할 것이며, 어항인 스스로 수산대국의 상태를 바라보는 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
부터 2천년대의 어항산업과 대국적인 해안을 갖출 수 있다. ㉔

정부 대응과 지원

성장 발전위해 적극 지원

民·官교량 역할 증진에 기대

徐承旭 <水産廳 施設局長>

어항 업계의 숙원사업이
자 최대 현안이었던 어항법 개정이 마침내 일
단락, 12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한국어항협회 역
시 그 위상과 기능 및 역할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
어항협회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항법과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지만 개정된 어항법 가운데
특기할만한 내용중 하나는 한
국어항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즉, 어항법 제38조제1항을
보면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
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

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협
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법 제32조
에 의거해 설립된 자율단체
성격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
회가 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
성격의 특수법인체로 전환되
게 될 것이 우선은 가장 큰
변화라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어항법 시행령 제32조
에서는 이에 관한 보다 구체
적인 기능과 역할, 다시 말해
한국어항협회가 앞으로 추진
해 나갈 업무를 보다 구체적
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협회 고유 업



무에 관한 사항, 둘째, 회원
의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
항, 셋째, 정부 업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먼저 협회 고유 업무에 관
한 사항은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와 이의 계몽·홍보 그리고 간
행물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협회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어항에 대한 대어민 계몽과 대국민 홍보이다. 어떤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항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항 이용자인 어민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한다면 지금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어항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협회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협회는 일종의 자율단체 성격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법정단체로서 공공기관의 성격이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협회는 정부와 어항업계의 중간자 입장에서 상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나라의 어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등한시 해 온 어항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어항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정부 건의나 자문, 그리고 어항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기술용역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어항인들의 불편을 제거해 주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어항협회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업무의 역할 분담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이에 관한 사항을 한번 열거해 보면 어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어항공사에 수반하는 조사 설계 및 감리, 어항에 관한 정부·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항개발의 입안은 정부가 하되 이에 부수되는 일부 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이 현재 한국어항협회의 조직이나 인력, 능력으로 볼때 단시일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을 언젠가는 협회가 수행해야 한다면 그 기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협회나 회원 모두가 이에 걸맞는 각오를 단단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수산청 역시 한국어항협회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행령 제32조제2항에도 「수산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협회와 어항인 모두가 어민과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래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진정한 모습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물라보게 변모할 새로운 한국어항협회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

